

## 신성솔라,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

신성솔라에너지(대표 이완근·김호식)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25일 공시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거해 2015년 12월31일까지 차입금 2179억의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6월25일 일본 Hayashimoto건설과 32억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06%에 해당한다.

<화학저널 2013/06/25>